



신 정 재

(주)에스에프 회장

## 가로수의 베팅목

**식** 목일에는 수십만명이 동원되어 헐벗은 산에 식목을 한다.  
이때에 심는 나무는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3~5년생의 어린것들이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좋은 환경의 가정으로 입양하듯이 종묘장에서 촘촘히 겹쳐서 자라던 어린 나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인공적인 삼림조성에도 아이를 입양하듯이 정성이 뒤따라야 한다.  
식수한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주위의 풀도 깍아 주어야 하고 비료도 주어야 한다.

이런 정상적인 식수와 사후관리는 당연하고 계속되어야 한다.  
인공조림의 선진국들인 독일, 스위스 가깝게는 일본인 경우 경제수종으로 바꾸어 온 국토를 조림 관리하는데 그 높은 알프스산 위에 있는 나무에게까지 비료를 뿌리는 것을 보았다.

식수 당시에는 30cm 전후의 크기에서 몇 미터로 성장된 뒤에도 이러한 관리는 계속되는 것이다.

고아를 입양해서 자립할 때까지 정성을 쏟아 자기가 놓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쏟아가며 키우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인공조림을 하여야 하는 것이 식수의 기본자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언제부터인지 기념식수를 한다든지 도시의 어디를 가나 그 많은 가로수를 심을 때 보면 한결같이 다 큰 나무들이다.

물론 관상수이니 보기 좋아야 하니까 당연히 다 큰 나무들이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옮겨 심음으로서 새 보금자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바람에 견디게 하기 위하여 삼각대 혹은 사각대로 벼팀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심은 나무가 몇십년을 키야 나올만한 목재, 그것도 대부분 수입된 비싼 목재들이 하잘 것 없는 벼팀목으로 썩어 가는 것이다.

한 나무를 세우기 위하여 세네개의 나무를 벌목해야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기념식수도 좋고 아름다운 가로수도 좋지만 이미 십년 이십년 다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3~4년 자란 어린 나무를 ‘어린 고아를 입양하여 키우듯’ 이 심는 것이 꼭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그런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려서부터 벼팀목 없이도 혼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입양하여 키우는 것과 같이 기르는 정이 더 깊어지고 부모 자식간에 인간적인 유대가 더 끈끈이 굳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혼자 자립 할 수 있도록 정성드려 교육을 시키듯이 정성껏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정성은 곧 새로 심은 나무가 커감에 따라 관심과 사랑이 더욱 커질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다 큰 자식이 마마보이가 되거나 몸집은 크지만 체력이 뒤태르지 못하는 과보호된 요사이 자식들을 보며 다 큰 나무가 벼팀목에 의지하여 서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어린 나무를 벼팀목 없이 키우는 것은 부모의 과보호 없이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 시집 장가를 간 자식들에게까지 집사주고, 애봐주고, 생활비주는 요사이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새로이 식수된 가로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듈다.

가로수는 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름의 시원한 그늘과 함께 푸르름과 가을의 풍성함이라도 주지 않는가? **[양계]**

